



### 새콤한 가을 낭만이 주렁주렁

### 애플 피킹

9월 초 프러임 레드, 중순 매킨토시, 그레니 스미스 등 수확 피킹 기전 웹사이트 통해 할인 쿠폰 확인 바람직  
펙킨, 옥수수 등 다양한 채소도 함께 구입할 수 있어

이제 여름의 기운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찔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을 느낄 수 있다. 바야흐로 과일 피킹 시즌이 시작된다. 호박 피킹보다 조금 일찍 시작되는 것이 애플 피킹이다. 9월 초에 수확되는 사과를 프러임 레드(Prime Red), 이어 9월 중순에는 매킨토시(Macintosh)와 그레니 스미스(Granny Smith), 코틀랜드(Cortland)가 수확된다. 매킨토시는 애플소스나 파이, 그레니 스미스는 파이, 코틀랜드는 애플소스용으로 잘 쓰이는 사과 종류이다. 물론 이 3가지 모두 생것으로 먹어도 맛있다.

생것으로 먹기 좋은 조나골드(Jonagold), 레드 델리셔스(Red delicious), 엠파이어(Empire)는 9월 말에 수확된다. 9월 말에 과수원을 찾는다면 이 종류를 피킹할 수 있다. 10월에 수확되는 좋은 아이디어 레드(Ide red), 이이다 레드는 일이 코편서 발 잡고 씹어 많아 그냥 먹어도 요리해도 좋다. 10월 중순에 수확하는 사과는 롬(Romes), 뭇수(Mutsu), 골든 델리셔스(Golden Delicious), 스무시 스(Smoothies) 등이 있다. 이중 블루 스무시스는 요리용으로 뭇수와 골든 델리셔스는 달콤하면서도 씹어 많아

생것으로 선호되는 사과 종류. 애플 피킹을 가기 전에는 웹사이트를 통해 할인 쿠폰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여유있게 스케줄을 잡는 것이 좋다. 1회용 장갑 등을 가져가도 좋으며 피킹을 하면서 사과 맛을 볼 때는 장갑을 뗄 필요가 없다. 특히 자신이 구매하지 않을 사과는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

■ 마스크 과수원  
한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마스크 과수원은 뉴욕 업스테이트 워릭(Warwick) 지역 200 에이커 동산에 14개의 다른 종류의 사과나무가 있는 곳이다. 애플 피킹은 10월까지 계속되는 데 주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에게 개방한다. 문의: www.maskers.com 845-986-1058

■ 데모네스트 농장  
뉴저지 바겐카운티에 위치한 데모네스트 농장은 주말에 한해 피킹을 제공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 사이트 현재 사과 시즌이 시작된다. 핏킨 피킹은 24일부터 시작된다. 주중에 피킹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이곳에서는 농장에서 재배된 싱싱한



과일과 채소를 판매하며 할로윈을 위한 옥수수 대도 판매한다. www.demarestfarms.com 201-666-0472

■ 로렌스 팜 오차드  
뉴욕 업스테이트 뉴버그에 위치한 로렌스 팜 오차드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피킹할 수 있는 곳이다. 사과를 비롯해 배, 복숭아, 포도(클로드 & 나이아그라), 옥수수, 토마토, 피망, 타일, 가지, 양배추, 브라콜리, 호박 등을 피킹할 수 있다. www.lawrencfarmorchards.com 845-562-4268 (박원경 기자)

### “산행 즐기며 봉사활동 하세요”

뉴욕·뉴저지 트레일 이사 선임된 김홍우 씨

### 10월 3일 정리 산행 '하이크-아톤' 행사

한인 김홍우씨가 뉴욕, 뉴저지 트레일 이사(NY/NJ Trail Conference Board Member)로 선임됐다. 김홍우 이사는 “오는 10월 3일 한인 하이커들이 즐겨 찾는 베이머운틴과 헤리만 주립 공원(Herriman State Park)에서 가을 산행을 위한 정리 산행을 갖는다”며 뜻있는 한인 산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랐다.



NYC 이사 김홍우씨

1920년 출범한 비영리단체 NTC는 뉴욕, 뉴저지 일대 1700 마일에 달하는 하이킹 전용도로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이며, 103개 하이킹 및 등산단체들의 연합체로 현재 100여개 단체, 1만 여명에 달하는 멤버들이 등록되어 있다. 오는 10월 3일 정리 산행은 '하이크-아톤(Hike-a-Thon)'으로 명명되어 올해로 두 번째 갖는 행사다.

등산길(trail)은 폭풍을 포함한 비바람, 침사, 서식 동물 그리고 무엇보다 수천명에 달하는 산행객들의 끊임 없는 발걸음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변형되고 피해를 입는다. 정리 산행은 봄, 가을 일반 산행객들이 본격적인 등산을 시작하기 이전 전문적인 산악 동호인들에 의한 일종의 서비스 활동이다.

김 이사는 “베이머운틴을 찾아가는 단풍을 즐기는 한인 등산객들이 편하게 산을 찾을 수 있는 것은 NYC 같은 단체들의 노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라며 “스스로도 즐길 수 있고 남을 위한 봉사 활동도 되는 정리 산행 행사는 산악인들에게 큰 보람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산행은 경사에 따라 4개의 코

스(Loop)로 나뉘어 진행된다. 가장 쉬운 1 코스는 헤시안 호수(Hessian Lake)에서 포트 클린트, 포트 몽고메리를 거치며 약 3.15마일, 2시간 소요 예정이다. 중간 단계인 2 코스는 두들타운(Doodletown)까지로 4마일, 2시간 30분 예정이며 3 단계는 린프톤에서 두들타운으로 8마일 5시간 20분의 힘든 코스다. 마지막 4 코스는 볼드 마운틴에서 존스 포인드-탐프 톤으로 정장 12마일, 8시간 20분이 소요되는 장거리 산행이다.

산행 코스에 따라 산행을 마치고 일찍 귀가 할 수도 있고, 좀 더 머물고 싶다면 당일 열리는 옥트버 패스티벌을 즐길 수도 있다.

주소: Pear Mountain Inn Parking 장

출발 시간: 7:30 am-8:30 am  
등록비: 개인 30달러/커플 50달러 (이벤트 티셔츠 및 프로포 상품도 준비)

문의: 혹은 김홍우 이사 914-484-3351

hanskhimm@gmail.com (www.ny.rjtc.org).



NYC 회원들이 베이머운틴에서 정리 산행 작업을 벌이고 있다.